

성인여성의 자기존중기억 주제에 관한 연구: 성취 혹은 관계

김영경¹, 고진경^{2*}

¹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²승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Themes of self-esteem memories in female adults: Achievement or relationship

Kim, Youngkyoung¹, Goh, Jinkyung^{2*}

¹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²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Soongsil Cyber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존중기억 내용의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기존중기억(self-esteem memory)이란 자기에 대해 현저하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데, 성취에 관한 내용과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대별될 수 있다. 연구 참가자는 청년기 여성(M=21.56) 18명, 중년기 여성(M=54.13) 15명, 노년기 여성(M=74.35) 20명으로 총 53명의 성인여성이었으며, 긍/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을 각 4가지씩 총 8가지를 회상, 구술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인여성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과 부정적 자기존중기억 모두 성취보다는 사회적 관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청년의 긍정적 기억에서 또 중년의 부정적 기억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개인이 강조되는 서양문화와 비교해 집단주의적 성격이 중시되는 우리 문화 특성과 공동체적 특질이 두드러진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추후에 자기존중기억의 주제에 대한 성차 및 생애 주기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자전적 기억, 자기 존중, 성취, 관계, 성인여성, 문화적 맥락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emes of self-esteem memories in female adults. Self-esteem memories mean memories that are focused on evaluations of the self and the themes of them are classified as achievement or social relationship. Eighteen young adults(M=21.56), fifteen middle aged adults(M=54.13), and twenty older adults(M=74.35), totally fifty three female adults participated. They recalled 4 positive and 4 negative self-esteem memories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memorie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worth frequently focused on relationship themes, and this tendency was significant in positive memory of young adults and negative memory of middle aged adults. This suggests that social relationship is a dominant cultural value in Korea. Link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sitive/negative self-esteem memories are explained by culture, gender and developmental tasks. Further researches about the differences by sex and life scripts in the content of self-esteem memories are needed.

Key Words : Autobiographical memory, Self-esteem, Achievement, Relationship, Female adults, Cultural context

*Corresponding Author : Goh, Jinkyung(gjksyr@mail.kcu.ac)

Received January 3, 2019

Accepted March 20, 2019

Revised February 3,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1. 서론

우리는 왜 나에게 일어난 과거 일을 회상하며 회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개인사에 관한 기억인 자전적 기억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에 동의한다. 첫째는 우리가 자전적 기억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현재 및 미래의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자 역할, 즉 지시적 기능이 있다. 둘째, 우리는 시간이 경과해도 일관된 자기상을 유지하는데, 과거 경험을 통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자기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해 주어 자전적 기억에는 자기 기능이 있다. 셋째, 사회적 관계에서 자전적 기억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의 소재가 되므로 사회적 유대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기능이 있다[1,2]. 이와 같이 자전적 기억을 회상, 시연, 공유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사회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데, 개인이 경험한 생활사건들은 자기 개념을 쌓아가는 한편, 자기 개념에 따라 어떤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전적 기억과 자기 개념은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3]. 이러한 이유로 Conway와 Pleydell-Pearce[4]는 자전적 기억을 자기의 일부로 보았으며 자전적 기억이 자기의 연속성을 지지하고 증진시키며 자기를 발달시킬 수 있을 때 자전적 기억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전적 기억은 매우 정서적이며[1,5,6], 개인의 목표와 가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만약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7], 자기 개념 및 자기 존중에 관한 연구 문제를 자전적 기억으로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일 것이다.

우리가 자전적 기억을 회상할 때 자기 및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부심, 감사함, 서운함, 배신감, 부끄러움 등을 느끼게 되는데, Pillemer 등[8]은 자전적 기억에서 자기에 대한 평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에 대해 현저히 좋거나 나쁘게 생각한 특별한 경우를 기술하기 위해 자기존중기억(self-esteem memor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기 존중이란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을 말하는 것으로 Rogenberg[9]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혹은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Elliot와 Mapes[10] 또한 자기 존중이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

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차원은 개인의 능력과 가치 면에서 확신하는 정도를 말하는 반면, 부정적 차원은 자기를 비판하는 정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자기 존중이 정신 및 신체 건강[11-13], 대인관계[14,15], 직업[16], 문제해결능력[17] 등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자기 평가가 이뤄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전적 기억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자기 존중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자기 존중이 긍정 및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구성되어 기능한다면 개인이 기억하는 긍정적 생활사건과 부정적 생활사건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기억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자기존중기억의 내용을 범주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그 중에 탁월한 접근법은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동기는 주로 성취 목표나 사회적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성취 및 뛰어난 능력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범주로, 개인 간 혹은 단체에서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또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었다[18,19]. Pillemer와 동료들[8]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꼈던 사건과 부정적으로 느꼈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인출한 기억에 대한 자기 평가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인출된 기억을 Woike 등[19]의 분류법에 따라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주제의 자전적 기억에 드러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대체로 성취에 관련된 주제였던 반면,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사회적인 주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 대학생 집단과 혼성 대학생 집단 그리고 중년 여성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이후에 Ivcevic 등[20]이 남녀 대학생에게 10-15세에 발생한 자기존중기억을 회상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성취에 관한 주제,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사회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적 기억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자전적 기억을 사건 발생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청년기는 정체감 관련 기억이 많았고 성인 초기에는 친구, 중년기 이후로는 생산성에 관한 기억이 많아 각 시기에 주를 이루는 기억의 주제가 심리사회적 발달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young adults(<i>n</i> =18)		middle-aged adults(<i>n</i> =15)		older adults(<i>n</i> =20)	
	<i>M</i>	<i>SD</i>	<i>M</i>	<i>SD</i>	<i>M</i>	<i>SD</i>
age	21.56	1.34	54.13	5.05	74.35	4.98
years of education	14.22	1.06	14.33	2.66	10.75	4.78
MoCA	28.94	1.16	26.00	2.51	24.4	3.02
RSES	34.94	6.42	36.87	3.27	35.10	4.85
BDI/GDS	8.61	4.41	7.27	5.82	9.65	6.18

단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1]. 노인 대상의 또 다른 연구에서 자전적 기억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 보았을 때 결혼에 관한 기억이 많았고 직업, 자녀, 배우자 및 부모의 죽음, 여행, 교육, 성취, 은퇴, 이혼, 질병, 사랑 등에 관련된 사건을 회상하였다[22].

상술한 바와 같이 자전적 기억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존중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좋은 도구이지만 자전적 기억과 자기존중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자전적 기억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 긍정 및 부정적인 자기존중감을 느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억압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살아 온 여성의 자기존중기억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참가자를 청년, 중년, 노년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 증가에 따른 자기존중기억의 주제 범주별 변화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각 범주의 기억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대학교 및 복지관을 통해 모집된 청년기 여성(*M*=21.56) 18명, 중년기 여성(*M*=54.13) 15명, 노년기 여성(*M*=74.35) 20명, 총 53명의 성인기 여성이었다. 회상 및 기억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참가자는 인지기능이 정상군에 속하고 정신장애가 없어야 하며 우울 척도 점수가 심한 우울 상태에 해당하는(*BDI*≥24, *GDS*≥22)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너무 낮으면 자기존중 관련 사건의 회상 및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 척도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도 참가가 제한되었다. 참가자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자기존중기억 회상

참가자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사건 중에 자신에 대해 긍정/부정적으로 느꼈던 일을 각 4가지씩 회상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자전적 기억 연구법에 따라 사건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으로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하고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일어난 사건은 제외되었다. 연구자는 참가자가 자전적 기억을 기술하는 동안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아’와 같은 경청 반응만 하였다.

2.2.2 몬트리올 인지기능 검사(Montreal

Cognitive Assessment-K: MoCA-K)

MoCA-K는 Nasreddine 등[23]이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고자 개발한 검사 MoCA를 수정, 보완하고 타당도 평가를 거쳐 한국형으로 작성되었다. 시간공간실행력,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지연 회상력, 지남력 등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며 경도인지장애 선별을 위해 절단점을 22점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2.2.3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

Rosenberg[24]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2개의 하위요인, 즉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개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4 노인우울척도(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노인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Yesavage 등[25]이 개발한 척도를 국내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예/아니오’

로 응답하는 이분 척도의 문항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증상과 관련된 문항은 배제하고 우울의 인지 및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의 우울 측정에 적합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

2.2.5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26]이 우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도구로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0~3점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0~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

2.3 연구절차

참가자는 이름,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답한 후, MoCA, RSES, KGDS/BDI 순서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자기에 대해 긍/부정적으로 느꼈던 사건을 각 4가지씩 회상하였는데, 참가자의 절반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을,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을 먼저 회상하여 구술하였다. 총 8가지 사건의 구술을 마치면 각 사건이 발생한 당시 참가자의 연령을 확인하였다. 모든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었으나 대체로 1시간~2시간 정도였다.

2.4 자료분석

자기존중기억의 내용 분석은 Woike 등[23]의 분류법에 따랐다(Table 2 참조). 범주는 크게 ‘성취’ 그리고 ‘관계’로 나뉜다. ‘성취’는 개인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완수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예이며 부정적인 예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예로는 평생교육원에서 구연동화를 배워 자격증을 취득한 일, 준비가 미흡하여 조별 발표를 망친 일 등이 있었다.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경험에 속한다. 긍정적인 예로는 즐거운 사회 경험, 사랑, 친밀함, 우정, 이해, 사회적 수용 등이 있고 신용이나 충성의 배신, 부정직, 이해 부족, 사회적 거부 등이 부정적인 예다. 본 연구에서의 예는 이웃 할머니를 위해 약을 사드린 일, 어린 아들의 잘못을 과하게 나무란 일 등이었다. 두 가지 주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서 양쪽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성취 및 관계’로 분류되며 두 가지 범주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된다. 두 연구자 간 분류 일치도는 ‘성취/기능’ 주제에서 91.83%, ‘사회관계’ 주제에서는 94.27%였으며,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Table 2. Content coding of self-esteem memories

themes		examples
achievement/mastery orientation events that are experienced as meeting(or not meeting) a personal standard of excellence	positive	success, recognition, accomplishment
	negative	defeat and failure to achieve a goal
interpersonal/affiliation orientation event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being with others	positive	enjoyable social experiences, love, intimacy, friendship, understanding between people, social acceptance
	negative	betrayal of trust or loyalty, dishonesty, lack of understanding, between people, social rejection
both events that contain achievement/mastery and interpersonal/affiliation themes	positive	when the joy of personal achievement is shared in a significant way with loved ones
	negative	failure to accomplish tasks by disagreement of friends
neither events that are focusing on themes other than achievement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ositive	obtaining tickets for a special concert, getting riding lessons for a birthday present
	negative	getting hurt from a fall, catching a disease

3. 결과 및 해석

성인여성의 자기존중기억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이 회상한 기억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전체 참가자에 대한 주제별 백분율은 Fig. 1과 같이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58.96%가 ‘관계’ 관련 주제였고 35.38%가 ‘성취’ 관련 주제였으며 두 가지 주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3.3%, 기타 2.36%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의 경우에는 ‘관계’ 관련 주제가 65.57%, ‘성취’ 관련 주제는 30.66%,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기억 중 부정적인 것은 없었으며 두 가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기억은 3.77%였다. 연령차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집단별로 분류한 ‘성취’와 ‘관계’ 주제의 백분율은 Fig. 2와 같다. 긍정 기억에서 청년은 성취가 23.61%, 관계가 69.44%였고 중년은 성취 30%, 관계 63.33%였으며 노년은 성취 50%, 관계 46.25%였다. 부정적 기억에서는 청년은 성취가 34.72%, 관계가 61.11%, 중년은 성취 16.67%, 관계 78.33%, 노년은 성취 37.5%, 관계 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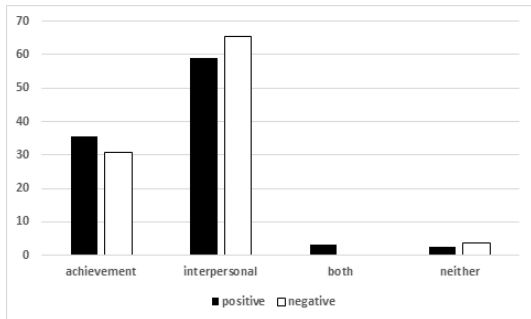


Fig. 1. Content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mem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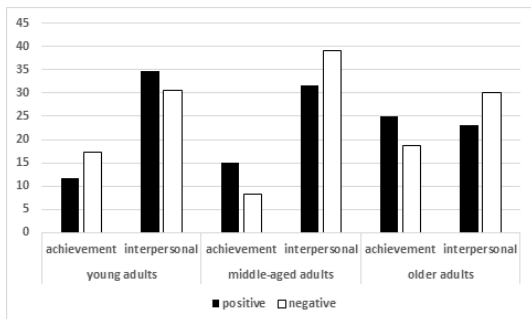


Fig. 2. Content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memories

긍정 및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성취 및 관계 주제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chi^2=12.40(p=.015)$,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는 $\chi^2=27.28(p=.000)$ 로 나타남으로써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느꼈던 사건에 대한 기억 모두 내용의 주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자기존중기억의 정서와 주제 간 관계를 분석하면 청년집단에서는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은 $\chi^2=21.59(p=.000)$,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는 $\chi^2=9.38(p=.052)$, 중년집단의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은 $\chi^2=5.51(p=.239)$,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은 $\chi^2=20.47(p=.000)$, 노년집단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chi^2=1.51(p=.825)$,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는 $\chi^2=4.53(p=.339)$ 으로 나타남으로써 청년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중년은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내용의 주제에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여성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과 부정적 자기존중기억 모두 성취보다 관계에 관한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청년의 긍정적 기억과 중년의 부정적 기억에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의 주제별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취 주제는 청년집단에서 학업 관련 내용이 61.9%로 가장 많았고 중년은 학업이 46.43%, 직업이 32.14%였으며 노년에는 직업이 41.43%, 취미나 특기 관련 내용과 자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15.71%, 건강 관리 관련 내용이 12.86%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주제에서는 청년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기억이 43.62로 가장 높았고 모르는 타인이 19.15%, 부모가 17.02%였다. 반면, 중년집단에서는 친구가 22.35%, 부모 17.65%, 자녀 15.29% 순이었으며 노년집단은 친구가 23.53%, 배우자 18.82%, 그 다음으로 자녀, 친척, 형제가 약 8%로 유사하였다. 이는 성인기 동안 직무가 학업에서 직업으로 옮겨 가고 은퇴 후에는 취미 및 특기 활동으로 바뀌는 과정을 반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청년기에는 친구가 주 관심 대상이었다가 중년에는 돌보아야 하는 부모 및 자녀가 비중 있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노년에는 배우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각 연령집단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제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참가자가 몇 세일 때 발생한 사건을 회상했는지를 살펴보면 청년집단은 19세와 20세에 발생한 사건이 35.42%로 가장 높았고 17세

부터 23세까지가 비슷한 빈도였다. 중년에는 40대에 일어난 사건이 35%, 50대의 사건이 33.33% 순이었으며 노년은 60대 사건이 33.13%, 70대 사건이 28.13%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기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 청년, 중년, 노년집단은 모두 근래에 일어난 사건을 주로 회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여학생, 중년 여성, 여성 노인으로서 구성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느낀 사건에 대한 기억, 즉 자기존중기억을 회상하여 구술하도록 하고, 회상된 자기존중기억은 성취 주제 및 관계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자기존중기억의 정서와 주제 간 관계를 알아보고 연령차를 살펴 보았다. 추가적으로 기억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기억 속의 사건 발생 시 연령을 연령집단별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성인 여성의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과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모두 사회관계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의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중년의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확인되었다. 자기 가치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사회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자기 가치는 성취 주제에, 부정적인 자기 가치는 사회관계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선행연구[8,20]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자기와 관련성이 높은 자전적 기억은 자기 참조 효과로 접근이 잘 되고, 높거나 낮은 자존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의 주제는 자기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나 실망감을 반영한다. 성취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이고 [27,28] 성취는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끼치며 전체적인 자기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28]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으로 성취 주제가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러나 비교문화 연구에 따르면 서양 문화에서는 개성, 독립, 자기 표현, 개인적 독특함에 연관된 특성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성취나 성공의 인지와 보상을 중요시하나 다른 문화에서는 개인적 성취가 우세하지 않을 수 있다[29].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인간관계, 집단의 조화, 일치성을 중시하여[30] 독특하고 독립적인 이야기보다 다

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 적응하는 것이 강조된다[31].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잘 발휘할 때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클 것이며, 자기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특성의 결핍을 발견할 때 실망감은 더욱 클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소속 욕구가 있고 소외나 고립을 피하고자 하며 사회관계에서의 부조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이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게다가 타인과 좋은 관계에서 받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사회관계에서의 문제가 생활 만족도와 자기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 [8]. 이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참가자가 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5개 국가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조사에서 남성은 경쟁적, 모험적, 신체 건강 같은 도구적 특질이 중심적이었던 반면,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으로는 공감적, 양육적, 직관적 같은 공동체적 특질이 주를 이루었고[32], 이는 여성에게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남성에게는 직업적 성취, 여성에게는 따뜻하고 안전한 관계 확립이 요구된다[33].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자전적 기억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34,35].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관계에 관한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정적 기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향성이 나타났다. 입시 준비와 대학교에서의 적응이라는 힘든 환경에서 우정을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일을 잘 수행했거나 수행하지 못한 사건이 쉽게 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년의 경우에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에서 관계 관련 사건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중년 여성이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돌보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을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면, 노년기에는 사회관계망이 줄어들고 친밀한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므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관계 문제가 줄어들고, 신체 및 인지능력이 감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주는 사건을 떠올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적용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억의 범주별 세부적 내용에서 성취 주제는 모든 연령에서 학업, 직업 등 직무 관련 내용이 많았으며 노년의 경우에는 은퇴 후 시기를 반영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직무 관련 비율이 줄어든 대신 취미 및 특기 활동에

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등장했고 신체 기능의 감퇴가 두드러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관계 주제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친구에 관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나 사회 관계망 및 역할 변화에 따라 중년에는 부모와 자녀 관련 사건이 그 뒤를 이었고, 노년에는 친구 다음으로 배우자에 관한 사건이 많았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연령 측면에서 청년은 19~20세에 일어난 사건을 많이 회상하였는데, 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교 입학 후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그 시기의 중요 발달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년은 40대와 50대, 노년은 60대와 70대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비교적 근래에 일어난 사건을 인출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국내 최초로 자전적 기억과 자기 존중감 간 관계에 관심을 두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존중기억 내용의 주제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성인여성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 모두 성취보다는 관계 관련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정체성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가 될 수 있겠다. 그 반면, 연구 대상에서 청년집단은 대학 입시가 주 관심사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였으며, 중년은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편으로 일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자기 개발을 위해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강좌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자가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는 이들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추후에 남성도 포함되어 성차를 살펴보고 각 연령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참가자가 충분히 참여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건의 발생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회상하도록 하였는데, 추후에 아동기, 청소년기, 초기성인기 등으로 구분하거나 근거리 및 원거리로 구별하여 사건을 회상하도록 한다면 시기별 자존중감 관련 경험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S. Bluck, N. Alea, T. Haberman & D. C. Rubin. (2005). A tale of three functions: The self-reported uses of autobiographical memory. *Social Cognition, 23*(1), 91-117.
- [2] N. R. Brandon, D. R. Beike & H. E. Cole. (2017). The effects of the order in which episodic autobiographical memories versus autobiographical knowledge are shared on feelings of closeness. *Memory, 25*(6), 744-751. DOI: 10.1080/09658211.2016.1217340.
- [3] A. E. Wilson & M. Ross. (2003). The identity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Time is on your side. *Memory, 11*(2), 137-149.
- [4] M. A. Conway & C. Pleydell-Pearce. (2000). The constru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the self-memory system. *Psychological Review, 107*, 261-288.
- [5] D. B. Pillemer. (1998). *Momentous events, vivid memor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6] A. Thome. (1995). Developmental truths in memorie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63*, 139-163.
- [7] M. A. Conway, J. Singer & A. Tagini. (2004). The self and autobiographical memory: Correspondence and coherence. *Social Cognition, 22*, 491-529.
- [8] D. B. Pillemer, Z. Ivcevic, R. A. Gooze & K. A. Collins. (2007). Self-esteem memories: Feeling good about achievement success, feeling bad about relationship di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292-1305.
- [9]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0] A. J. Elliot & R. R. Mapes. (2005).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and self-concept evaluation. In A. Tesser, J. V. Wood, & D. A. Stapel (Eds.), *On building, defending, and regulating the self* (pp. 171-196). New York: Psychology Press.
- [11] C. A. Christie-Mizell, A. K. Ida & V. M. Keith. (2010). African American and physical health: The consequences of self-esteem and happiness. *Journal of Black Studies, 40*(6), 1189-1211.
- [12] U. Orth, R. W. Robins & B. W. Roberts.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695-708.
- [13] D. A. Stinson, C. Logel, M. P. Zanna, J. G. Holmes, J. J. Cameron, J. V. Wood & S. J. Spencer. (2008). The cost of lower self-esteem: Testing a self and social bonds model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3), 412-428.
- [14] U. Orth, R. W. Robins & K. F. Widaman. (2012). Life-span development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 important lif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271-1288.
- [15] D. J. Laible, G. Carlo & S. C. Roesch.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16] T. A. Judge & J. E. Bono.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2), 237-249.
- [17] M. McKay & P. Fanning. (2000). *Self-esteem: A proven program of cognitive technique for assessing, improving, and maintaining your self-esteem(3rd)*.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 [18] D. P. McAdams.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 100-122.
- [19] B. Woike, S. Mcleod & M. Goggin. (2003). Implicit and explicit motives influence accessibility to different autobiographical knowled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046-1055.
- [20] Z. Ivcevic, D. B. Pillemer, Q. Wang, Y. Hou, H. Tang, T. Mohoric & V. Taksic. (2008). When we feel good and bad about ourselves: Self-esteem memories across cultures. *Memory*, 16(7), 703-711.
- [21] M. A. Conway & A. Holmes. (2004). Psychosocial stages and the accessibility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across the life cycle. *Journal of Personality*, 72, 461-480.
- [22] D. K. Thomsen & D. Berntsen. (2008). The cultural life script and life story chapters contribute to the reminiscence bump. *Memory*, 16(4), 420-435.
- [23] Z. S. Nasreddine, N. A. Phillips, V. Bedirian, S. Charbonneau, V. Whitehead, I. Collin, J. L. H. Chertkow. (2005).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a brief screening tool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3(4), 685-689.
- [24]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5] J. A. Yesavage, T. L. Brink, T. L. Rose, O. Lum, V. Huang, M. B. Adey & V. O. Leirer.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 37-49.
- [26] A. T. Beck.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27] E. L. Deci & R. M. Ryan.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28] A. J. Elliot, H. A. McGregor & T. M. Thrash. (2002). The need for competenc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61-387).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29] M. R. Nelson & S. Shavitt. (2002).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achievement values: A multimethod examination of Denmark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39-458.
- [30] G. Hofstede.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s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31] M. D. Leichtman, Q. Wang & D. B. Pillemer. (2003). Cultural variations in interdependence and autobiographical memory: Lessonsw from Korea, China, India, and the Unites States. In R. Fivush & C. A. Haden (Eds.), *Autobiographical memory and the construction of a narrative self: Developmental and cultural perspectives* (pp. 73-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Associates Inc.
- [32] J. E. Williams & D. L. Best. (1990). *Measuring sex stereotypes. A multination study* (Rev. ed.). Newbury Park, CA: Sage.
- [33] Y. Maki, Y. Kawasaki, B. Demiray & S. M. J.Janssen. (2015). Autobiographical memory functions in young Japanese men and women. *Memory*, 23(1), 11-24.
- [34] N. Alea & Q. Wang (2015). Going global: The functions of autobiographical memory in cultural context. *Memory*, 23(1), 1-10. DOI: 10.1080/09658211.
- [35] Y. Maki, Y. Kawasaki, B. Demiray & M. J. Janssen. (2015). Autobiographical memory functions in young Japanese men and women. *Memory*, 23(1), 11-24. DOI: 10.1080/09658211.

김 영 경(Kim, Young Kyoung) [정회원]



- 2013년 2월 :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문학박사, 노년심리 전공)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숭실사이버대학교 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연구원

· 관심분야 : 인지노화, 자전적 기억
· E-Mail : ykkwhite@hanmail.net

고 진 경(Goh, Jin Kyung)

[정회원]



- 2007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숭실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병리, 인지행동치
료, 임상심리, 심리평가

· E-Mail : giksy@mail.kcu.ac